

스무번째 이야기

광야에서 맺는 열매를 위하여

[뜻대를 향하여④ 양재BEE 일본 몽골]

나문채, 주미경 선교사님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려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온 지도 꽤 시간이 갔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한 그곳에서 에너지 넘치는 저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

볼까 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설렸는데 막상 도착하니 저희 나름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두 선교사님께서 조용하게 한 영혼을 찾고 찾으며,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발걸음을 보며,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갖추며, 말씀의 능력을 더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저는 꿈을 꾸며 또 한번 일본 땅을 밟아 보기를 기도하지만 행함을 결단하기는 어려운데 선교사님은 코로나 19에도 계속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이 난관을 뚫으시네요. 주님이 주신 일본 땅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애절한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선교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입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두 분 선교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값진 삶을 사명감으로 걸어가시네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덤으로 두 자녀 경수와 태경이에게도 믿음의 유산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재 BEE 이경숙 권사 드림




이철희, 원은복 선교사님



광야 같은 광활한 대지의 척박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땅, 몽골을 위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을 하염없이 펼쳐주시는 두 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베풀어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도 우리의 죄성은 그 뿌리가 깊어 조금만 방심하고 한번 유혹의 파도에 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넘어지는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순간 순간 절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신 두 분께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몽골 땅에 베풀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인 두 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사오니, 안심하시고 주의 사역을 잘 이루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충성됨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양재 BEE 이해정 권사 드림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monotoon [모놀로그 인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모놀로그인바이블
모노톤 일러스트

이 세상의 거대한 운명이 우리의 태중에 들어와 있구나

2. 엘리사벳
누가복음 1:13~45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여섯 달 전.

제사장인 남편이 성전에서 언어를 잃은 채 돌아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필담으로 들려주었다.

깜짝 놀라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것은 예언자 말라기의 글 마지막 절이 아닌가!

엘리아가 온다는 건, 뒤이어 메시아가 오시는 거라고, 암흑 같은 사백 년간 우리 민족은 믿고 또 고대해왔다.

그런데, 바로 그 엘리사가 내게서 낳 아들이라고...?

아들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했다.

아아, 똑같은 기적을 뱃속에 품은 늙은 나와 어린 너...

이 세상의 거대한 운명이 우리의 태중에 들어와 있구나.

에인 캐럴 깊은 산골 마을,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을 접고 이곳으로 들어왔다.

올해 예수한 살인 나는 지금 첫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시들어 죽은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은 엘리사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다...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우린 즉시 짐을 꾸렸다.

불임의 수치를 벗은 기쁨을 만끽한 것도 잠깐, 아기의 막중한 사명을 놓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다.

한데 뜬금없이 오늘 마리아가 혼자 이곳을 찾아왔다. 그녀가 들어오자 뱃속 아기가 요란히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알아냈다.

그녀의 태중에 메시아가 와 계심을!

에미라는 자리가 이토록 무거움을 이 나이에야 깨닫는다.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g

BEE 소식

- 2022년 “일상을 넘어 꺾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 22년 하반기 OBA 및 심화 과정! 말씀과 더불어 성장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2-2 하반기 OBA(온비아), 심화 과정					
	월	화	목	토	주일
오전		온라인 갈라디아서 9/6-10/25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19-12/19			
		대면 서빙고 201호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 10/17-1/02		온라인 교회사 2 9/17-11/26	
오후		온라인 갈라디아서 9/5-10/31	온라인 갈라디아서 9/8-10/27		온라인 갈라디아서 9/4-10/30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19-12/19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22-12/15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18-12/18
		대면 서빙고 302호 성경연구방법 1 9/5-11/21			온라인 교리론 2 9/18-12/4

* 문의 전화 : 02-822-9480 (내선104)

- 9월 17일(토) 6:30, 대면으로 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온라인도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선교사역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요!